

선수층 얇은 야수진, 베테랑 부진에 '총체적 난국'

이범호 은퇴·이명기 트레이드 등 전력 누수에 선수들 부진·부상
김주찬·나지완·안치홍 등 빈자리 신예 야수들 수비 약점 노출
박찬호·이창진 활약에 위안...자기 반성·경쟁 통한 새 그림 필요



‘호랑이 군단’의 2019시즌 화력은 물음표에서 시작해 물음표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는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KIA는 홈런왕을 놓고 집안싸움을 벌인 최희섭-김상현 ‘CK포’와 안치홍과 나지완 두 신예 선수의 힘까지 더해 2009년 가을 주인공이 됐다. 2017년에는 7명의 3할 타자를 앞세워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2017년 영광의 순간에 섰던 이범호, 김주찬, 최형우, 나지완, 이명기, 김민식, 김선빈, 안치홍 등 ‘우승 멤버’는 올 시즌 동반 부진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이와 함께 지난 시즌부터 언급됐던 ‘야수진의 세대교체’가 2019시즌 시작과 함께 KIA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하지만 KIA 벤치는 베테랑의 기용을 놓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우승멤버’들의 영광은 짧았다. 이범호가 시즌 중반 은퇴식을 갖고 그라운드를

떠났고, 이명기는 우타거포 부재 고민에 빠진 KIA의 트레이드 카드로 NC로 이적했다. 최형우만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136경기에 나온 최형우는 타율 0.300, 17홈런, 86타점을 기록했다. 김선빈도 최종전 두 타석을 통해 겨우 규정타석에 진입했고 김주찬, 안치홍은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했다. 나지완과 김민식은 60경기도 채우지 못하고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막강 공격’으로 우승은 했지만 야수진의 노쇠화에 따라 화력은 약해졌고, 화력에 가려져 있던 수비 약점이 극명하게 노출됐다. 베테랑 선수들의 부진으로 많은 신예 자원이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수비형, 공격형으로 약점이 뚜렷한 신예 야수진은 효율적인 전력 운영에 걸림돌이 됐다. ‘미완의 대기’들이 펼친 1군 도전 결과도 좋지 못했다. 팀 전력상 1군 무대가 쉽게 개방됐지만, 대부분 높은 벽만 실감했다. 실력을 채우지 못한 선수들의 민망한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KIA 팬들의 실망감도 커졌다. 꾸준히 유망주를 영입하면서 선수층을 강화하고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수준을 높인 ‘젊은 마운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앞서 주축 선수들의 수비 약점 만회를 위해 ‘멀티 플레이어’가 강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확고한 틀 없는, 야수진의 전력 약화로 이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시즌도 뚜렷한 밑그림 없이



김주찬



나지완



안치홍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역할을 해줬던 최형우도 앞선 두 번의 시즌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떨어졌다. 막판 스피트를 보여줬지만 ‘최고참’ 김주찬도 40대에 접어들다. KIA의 귀한 야수 프랜차이즈인 김선빈과 안치홍은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이들의 거취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올 시즌 우울한 팬심을 달래준 희망은 있었다.

‘에비어’ 박찬호가 약점으로 꼽히던 공격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KBO리그의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중고 신인’ 이창진은 꾸준하고 ‘간절한 플레이’로 중견수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생애 첫 홈런과 규정타석 등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KIA에는 예견된 야수진 세대교체 과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들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 또한 리빌딩과 세대교체의 발판을 쌓을 수 있었던 시즌이었지만 방향성 없는 ‘무조건 기용’으로 KIA는 야수진의 큰 틀을 그리는 데 실패했다. 냉정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진짜 경쟁’을 통해 야수진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스리그의 사나이’ 황희찬

리버풀전 1골1도움 맹활약

‘황소’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황희찬은 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 조 1차전에서 0-3으로 끌려가던 전반 39분 귀중한 추격골을 넣는 등 1골 1도움을 올리며 중흥무진 활약했다. 잘츠부르크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리버풀의 사도오 마네가 전반 9분만에 진정팀에 비수를 꽂았다. 사도오 마네는 커리어 초반 2012-2014시즌 잘츠부르크에서 실력을 쌓아 ‘월드클래스’ 잉어로 성장한 플레이어다. 리버풀은 전반 25분 왼쪽 풀백 앤디 로버트슨과 모하메드 살라가 잇따라 골을 넣으면서 경기 시작 36분만에 3-0으로 달아났다. 지난달 훈련 도중 눈 부상으로 점점 고글을 쓰고 그라운드에 나선 황희찬은 경기 초반 리버풀 수비에 막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전반 중반 답답함을 느낀 황희찬은 고글을 그라운드 밖으로 던져 버렸다. 그때부터 플레이는 돌변했다. 전반 39분 황희찬의 플레이는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상대공격수에게 단 한차례의 톨파도 허용하지 않았던 반 다이크를 상대로 멋진 페이크를 구사했다. ‘통곡의 벽’ 반 다이크는 황희찬의 변칙적인 플레이에 힘없이 쓰러졌고 이를 놓치지 않은 황희찬은 보란듯이 강슛을 날려 골망을 출렁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황희찬은 후반 11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연결, 팀 동료 미나미미다쿠미의 멋진 발리슛 득점을 뒷받침했다.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최악이지만 이틀 듀오는 잘츠부르크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최근 유럽 명문

구단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엘링 홀란드(24)가 후반 15분 골을 터트리며 0-3에서 3-3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후반 24분 모하메드 살라에게 빼 아픈 골을 내주고 3-4로 패했다. ‘골든보이’ 이강인(발렌시아)도 같은날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약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 조 2차전에서 후반 12분 막시 고메스를 대신해 투입됐지만 팀은 0-3으로 패했다. 발렌시아는 반전카드도 0-2 상황에서 이강인을 투입했지만 후반 22분 아약스의 반터백에게 쇄기골을 내주고 0-3로 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위 매직넘버 3 ... 광주 FC 승격 앞으로~



광주FC가 6일 오후 5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아산무궁화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광주 공격 전면에 서게 될 펠리페가 슈팅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LG, 준플레이오프 진출

와일드카드 1차전 NC 3-1 제압...6일 키움과 1차전

NC 다이노스의 가을잔치'가 한 경기에서 끝났다.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KBO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LG 트윈스가 NC를 3-1로 제압하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4위팀 어드벤처로 1승을 안고 출발한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1차전에서 종료됐다. NC가 1회말 1사 2루에서 이형종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NC는 4회말 선발 프리드리히를 일찍 내리고 불펜을 가동했지만 대타로 나온 LG 베테랑 박용택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줬다. 이

형종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0-3이 됐다. 5회초 노진혁의 솔로포로 1점을 만회한 NC는 9회초 1사 만루의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박석민의 짧은 우익수 플라이로 득점 없이 아웃카운트만 올라갔다. 이어 앞서 홈런을 기록한 노진혁이 타석에 섰지만 경기는 LG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LG켄리가 6.2이닝을 3피안타 1파홈런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와 함께 데일리 MVP가 됐다. LG는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일정을 시작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6일 아산과 원정전
- 2위 부산과 승점 7점차
- 7위 전남, 3연승 도전

광주FC가 아산 원정서 우승 시계를 앞당겼다. 광주FC가 6일 오후 5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아산 무궁화와 하나원큐 2019 K리그2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거침없는 질주를 펼치고 있는 광주는 이번 원정에서 3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앞선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윌리안과 임민혁의 득점으로 2-1로 이기면서 부산전 패배 이후 연승에 성공했다. 홈 4연승을 찍은 광주는 올 시즌 홈 무패행진(11승 5무)도 이어갔다. 광주가 연승에 성공했지만 2위 부산아이파크는 지난 2일 열린 31라운드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두 팀의 격차는 7점 차로

벌어졌다.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부산이 5점 전승을 거둔다고 해도 광주가 3승을 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31라운드 결과에 따라 한결 여유가 생긴 광주는 우승 부담감을 털고 기본 종계 아산 원정에 나선다. 펠리페와 김주공으로 구성된 광주의 새로운 두톱이 우승으로 가는 길에 앞장선다. 3경기 출장 징계를 받았던 펠리페는 복귀 경기였던 29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골을 넣으며 식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앞선 안산 홈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지만, 위력적인 움직임도 보여줬다. 김주공은 최근 3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 광주의 새로운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김주공은 펠리페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분산시키면서 공격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의 매서움과 강렬한 슈팅은 물론 최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연계플레이도 돋보인다. 광주는 투톱으로 나선 홈 2연전에서 5골을 만들

어내면서 새로운 공격 옵션을 마련했다. 수비도 이상 없다. 이오펜은 지난 안산전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마사를 철벽 방어했고, 이시영은 측면 공격과 수비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해 골문을 지키는 이진형 역시 안정된 볼 처리와 연이은 선방으로 광주의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대전으로 가 3연승에 도전한다. 전남도 안양전에 이어 지난 2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부천FC를 8위로 끌어내리고 7위로 상승했다. 두 경기에서 전남은 5골을 몰아넣으면서 뜨거운 화력을 과시했다. 특히 앞선 안양전에서 38초 만에 벼락골을 터트렸던 바이오가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전남 상승세의 중심에 있다. 안방에서 연승을 달린 광주와 전남이 원정길에서 다시 승리를 신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